

호모 리브로, 혹은 도서관 - 우주



글 | 우 찬 제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관장
wujoo@sogang.ac.kr

도서관에 없는 것이 있을까? 없는 것이라곤 단지 없는 것 아닐까. 일찍이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갈파했던 이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환상적 리얼리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였다. 그는 세상이 미궁이고 현실이 미로 같다고 생각했던 작가다. 그가 보기에 신은 매우 정교한 설계도를 가지고 미궁의 세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인간이 제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서의 눈으로 세계를 성찰하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세계의 질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사실들만 인간이 확인할 수 있다. 세계는 영원한 미궁인데 반해, 인간은 그 미궁의 설계도를 훑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은 겸허하게 미궁 속의 존재임을 수긍하는 쪽이 차라리 낫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만용은 위험하다. 미궁을 상상하고 추리하는 일이 가장 인간적인 일인지도 모른다고 보르헤스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길은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보르헤스가 보기에 인간의 길은 대체로 도서관을 통해서 어렵사리 가능성을 탐문할 수 있다.

보르헤스는 189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 아버지의 도서관에서 태어난 그는 도서관에서 유년을 보냈고, 하급 사서에서 국립도서관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는 거의 도서관을 배경으로 엮여졌다. 그러니 “보르헤스는 도서관에서 태어나 도서관에서 살다가 도서관에서 죽어 도서관에 묻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도서관의 작가”였다. 1936년 보르헤스는 미겔 까네 시립도서관에 취직하여 사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을 보르헤스는 이렇게 술회한 바 있다.

도서관에선 별로 할 일이 없었다. 모두 50여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5명이면 적당한 일거리였다. 내가 소속된 부서에는 20여명의 동료들이 같이 일했는데, 책을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책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상 책을 받아보면 분류 작업은 간단히 끝났다. 심지어 도서 분류표를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단순한 작업이었다. 나는 근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열심히 일했다. 다음 날 출근하니, 몇몇 동료들이 나를 따로 불러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렇게 일하면 우리들 중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제 내가 일한 작업량은 400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대개 하루 100권 정도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한다면 부장이 우리를 내쫓을 지도 모르오.” 그들은 내게 충고하기를,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첫날은 83권, 다음 날은 90권, 셋째 날은 104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고 권했다.

(『자서전』, 241쪽, 여기서는 김홍근, 『보르헤스 문학 전기』, 숲, 2005, 266쪽에서 재인용함)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정말이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어쨌건 이런 분위기의 도서관이었기에 보르헤스는 사서로서는 불행했지만, 그 대신 독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시간은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일찌감치 그 날의 일을 마치고 지하서고에 내려가 홀로 책 읽기를 즐기며 끊임없이 글을 써나갔던 것이다. 그의 삶은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쓰는 일이 ‘혼돈 속의 질서’처럼 격렬하게 융합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창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생각하는 인간(Homo Sapiens), 읽는 인간(Homo Libro), 허구적으로 꾸미는 인간(Homo Fictus)이 서로 스미고, 짜이며, 끊임없이 갈라지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빚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미궁으로부터 비상할 수 있기를 꿈꾸었다. 가령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은 미로 정원의 이야기다. 2차대전을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적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독일 스파이 유춘과 그가 존경하지만 살해하는 영국인 앨버트, 유춘을 쫓는 영국 첩보대 장교 등이 벌이는 사건은 현실이 속절없이 미궁임을 환기한다. 그들은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가치와 상관없는 모순과 혼돈 속에서 행위하며 죽거나 죽인다. 이와 관련한 취팽의 미궁에 관한 이야기는 보르헤스 나름의 미궁의 형이상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팽의 작품에서는 모든 결말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각 결말은 또 다른 갈라짐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말만 분열적인 것이 아니다. 중간도 아니 시작마저도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 온통 미궁 속인 것이다. 그것은 혼돈인 동시에 열린 가능성이다. 그런 성격의 미궁일 수밖에 없는 세계를 보르헤스는 도서관 혹은 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바벨의 도서관』에서 보르헤스는 도서관은 무한한 우주이고, 책은 신이라고 적는다. 인간이 우주의 신비와 질서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신이 쓴 책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가능하랴. 그러니 우주와 세계는 영원히 미궁일 수밖에 없다. 보르헤스의 도서관이 다름 아닌 바벨의 도서관인 것도 그 이유다. 바벨은 아시리아 말로는 신의 문을 뜻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혼돈을 뜻한다. 그러므로 바벨의 도서관이란 “우주의 신비가 담겨진,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신비를 알 수 없는 혼돈스런 도서관”(이남호, 1994)인 셈이다.

아울러 『베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는 호모

리브로의 창조적 형성력을 알게 하는 매우 흥미로운 소설이다. 독자에서 작가로의 탄력적인 호환 양상을 보이는 독-작자(讀-作者)의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20세기 초 프랑스 상징주의 계열의 작가 베에르 메나르라는 허구적인 인물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중 일부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베껴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를 넘어서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독특한 과정을 다룬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이 왜 훌륭한 작품일 수 있는가를 매우 흥미롭게 논증하고 있는 소설이다. 17세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보다 20세기 베에르 메나르의 『돈키호테』가 문체나 주제 의식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말한다. 오랜 다시 읽기의 과정에서 돈키호테의 내용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문장과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300년의 시간 거리와 직업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라는 저자의 차이에서 얼마든지 다른 수용 지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읽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글쓰기, 수용의 생산적 전환의 사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도서관이라 불리는 이 우주”, “도서관이라 불리는 무한공간의 미로”와 같은 표현을 보르헤스가 왜 그리 즐겨 썼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바벨의 도서관』의 한 대목을 보자.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미래 세계의 상세한 역사, 천사들의 자서전들, 도서관의 믿을 만한 서지목록, 수백만 개의 가짜 서지목록, 그 가짜 서지목록들의 허구성을 증명한 책, 진짜 서지목록의 허구성을 증명한 책, 바실리데스의 그노시스적 복음, 이 복음의 주해서, 그 주해서의 주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명서, 각각의 책에 대한 모든 번역본들, 모든 책들의 증보판들.”(이남호, 1994) 도서관은 무한하며, 혼돈스럽다. 진실에서 허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펼쳐진다. 카오스(chaos, 혼돈)와 코스모스(cosmos, 질서)의 합성어인 카오스모스(chaosmos)의 공간이 도서관이다. 그러므로 호모 리브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나가는 구도자와 비슷하다. 도서관 사서든 독자든, 모든 호모 리브로들은 도서관-우주에서 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탐문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호모 리브로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환상 발전소를 가동하는 창의적 독-작자들이다. (P)